번호: PO-EM-011

제 목	소규모 제조업에서 재해발생과 사업장 특성간의 관련성				
저 자 및 소 속	김형수1), 장성훈1), 이건세1), 정최경희2), 이관형3), 오지영3) 1)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산업의학과, 3)한국산업안전공단 정책조사연구팀				
분 야	환경의학 [산업보건]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목적: 기존의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접근은 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인적 요인 이외에 사업장이 갖는 특성과 재해발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업종, 고용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체계적 층화표본추출을 시행하여 1,886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사업장을 훈련된 조사원이 방문하여 사업주,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지난 2004년 5월부터 7월사이에 실시하였다. 재해(산업재해, 경상, 공상을 포함) 유무에 따른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업종, 지역별 분포, 산업형태), 고용특성(생산직 근로자의 분포, 여성근로자의 분포, 노동시간, 교대근) 및 안전보건 특성(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수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동조합의 설치 및 활동정도,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활동수준, 안전문화수준) 등을 비교하였다.

결과: 소규모 제조업에서 재해발생과 관련된 사업장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서 업종, 지역 분포, 산업형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고용특성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많을수록, 여성근로자가 적을수록, 1주일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교대근무를 시행할 때 재해가 유의하게 많았다. 셋째, 안전보건특성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전임으로 근무할수록, 산안전보건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할수록, 노동조합이 미설립될수록, 안전보건규정이 갖추어지지 않을수록, 정기보건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안전보건활동수준이 낮을수록, 안전문화수준이 낮을수록 재해발생이 유의하게 많았다.

결론: 소규모제조업에서 사업장이 갖는 특성에 따라 재해발생 수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노력이외에도 사업장 수준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